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있나요?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한국에도 쌀쌀해져서 벌써 긴 옷, 긴 옷을 입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 밤에는 정말 정말 춥고

낮에는 또 날씨가 따뜻해요

이렇게 일교차, 일교차가 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길 바라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저번 시간과 비슷하게

한국어에만 있는 그런 표현들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유용한 단어들 많이 들고 왔으니까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파이팅하고 새로운 단어들 잘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주관입니다 주관

주관이라고도 하고

자기를 붙여서 자기 주관이라고 많이 써요

이 주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만의 의견인데요

자, 주관이 있다, 자기 주관이 있다

내 주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내 생각, 내 의견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있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관이 있다도 많이 쓰고

주관이 뚜렷하다도 많이 써요

뚜렷하다는 확실하다, 분명하다랑 비슷한데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아,

싫은 거는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싫은 것 같아 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내 의견을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 기준과 나의 생각, 가치, 가치가 있어서

남 눈치, 눈치라는 단어 아나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남 눈치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취향, 취향도 있고

나만의 기준, 기준과 중심이 있는 느낌이에요

중심은 이렇게 중간에서 기준이 되는 거,

이런 중심이 있어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반대가 주관이 없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자기 주관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요

보통 남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물었을 때 어 다 괜찮아

나는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뭐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거,

여행 가서 뭐 할지 이렇게 간단한 거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자기 주관은 조금 더 큰 느낌이에요

나만의 기준,

중심이 없는 느낌이라서

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보통 자기 주관에 없는 사람들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많이 쓰입니다
보통 내가 싫어,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에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식당이나 어디 여행 갔을 때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을 때 "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보통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맞춰주다 내가 너 원하는 거 맞춰줄게
이 단어는 보통 좋게, 좋게 쓰인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통은 좀 작은 결정들이죠
뭐 음식이나 어디 가고 싶은지

이런 거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잘 맞춰준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잘 맞춰주는 건 좋은데

매일 너무너무

정말 나의 주관이 하나도 없이

어, 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모든 거를 그 다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맞춰주는 사람은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내 주관이 없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싫을 수도 있어

별로 하고 싶은데도

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내가 걱정해

걱정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말하는, 꼭 이런 착한 친구들이 있죠

이런 착한 친구들은

우리가 다 맞춰주는 친구,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다 맞춰주는 사람은, 착한 느낌이에요

주관이 없는 거는

나만의 기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아예 모르는 느낌이라서 좀 나쁜 느낌이 있는데

다 맞춰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그 사람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배려, 배려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 맞춰주는 사람도 내가 계속 잘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좀 귀여운 단어죠 만만하다

노래도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 내가 만만하니

이런 노래가 있는데

다 맞춰주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

재는 항상 예스라고 해

재는 항상 괜찮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재한테 다 시키자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쉽게, 쉽게 대하는 거예요 나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

근데 나보고 "어, 너가, 너가 다 계산해

이렇게 하면은 어, 조금 많이 나쁜 거 같은데 어,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거절을 잘 못해요

노라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쉽게 쉽게 보고 "아,
재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야
무슨 부탁, 어떤 부탁을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아주 만만하게 보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맞춰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너무너무 잘 맞춰주면
다 맞춰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어?
얘는 다 맞춰주니까 아무거나 부탁을 해도 되겠다." 하면서
내가 약간 만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되면은 안 좋겠죠,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만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쓰입니다

이 남자들이 싸울 때도 좀 많이 써요

"아, 저 사람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도 자주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주관이 있는 것과

만만하게 보는 것,

그 중간, 중간쯤에 있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융통성이 있다입니다 융통성

발음이 조금 어렵죠?

융통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융통성이 있는 거는

어떤 일이 바뀌었을 때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원래 플랜 A가 있었어요

음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플랜 B를 만드어요

플랜 B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
그럼 다른 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무조건 플랜 A로 가야 해 어 플랜 B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 다른 상황이 있는데도
원래 계획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어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는데
한국어로 꼰대라고도 하거든요
꼰대는 보통 이 나이 많은,
융통성이 없는 아주아주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어 조금 융통성이 없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할 때는 이 융통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이나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거는 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같은 거 할 때도

뭐 버스 놓치고

지하철 놓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융통성이 있는 친구들은 "어, 그래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쉽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어... 융통성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아 나 오늘 진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짜증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저는 되게 "어? 문제 생겼네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쉽게 쉽게 잘 넘어가는 편인데,

아,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내 계획에서 다르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같은 루틴 좋아하고

이미 정해진 거,

정해져 있는 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그런 규칙적인 사람들이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 조금 융통성을 길러야 된다
융통성을 기르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융통성이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 계획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표현도
정말 많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우리 팟캐스트 듣고 복습도 하고
잘 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할 거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